

492만권 BEST SELLER | 2006~2021 누적 판매 1위

REAL ORIGINAL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2022 리얼오리지널 The newest edition

[교재 구성] 문제편+해설편+등급컷+정답률+오답 BEST+OMR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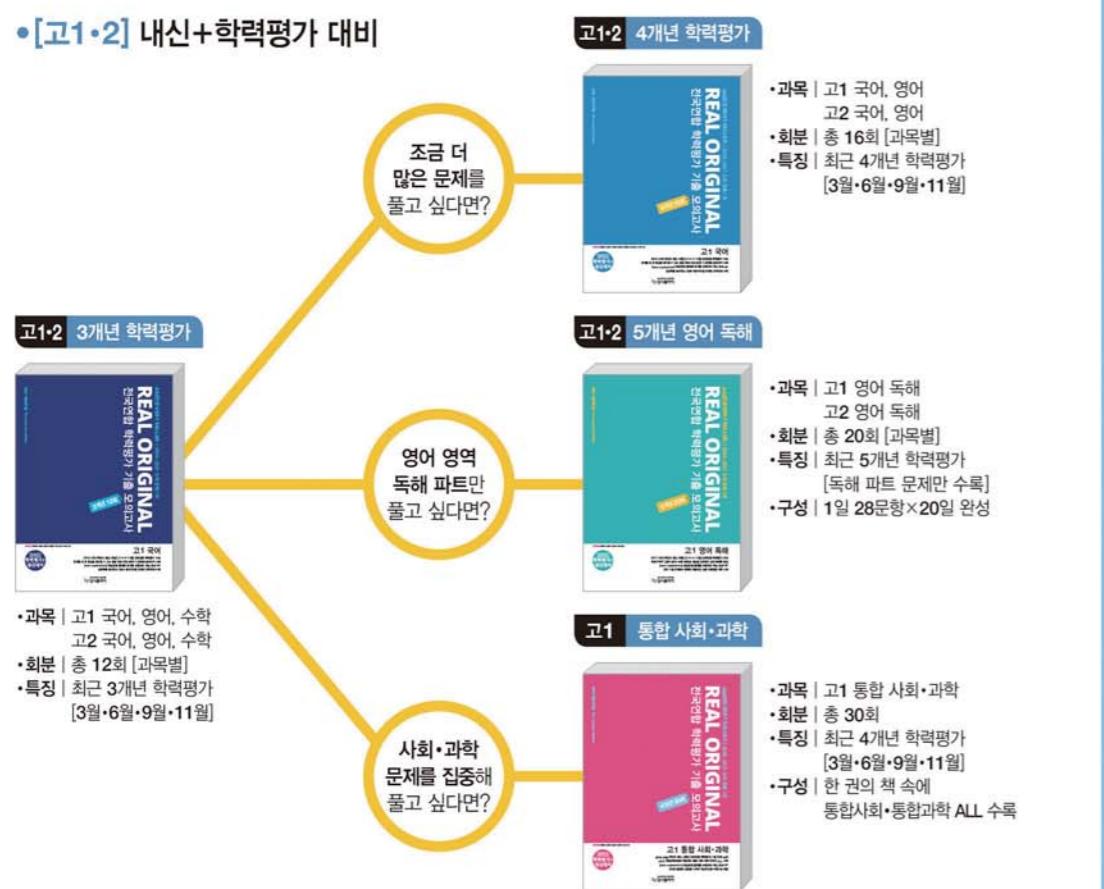


고1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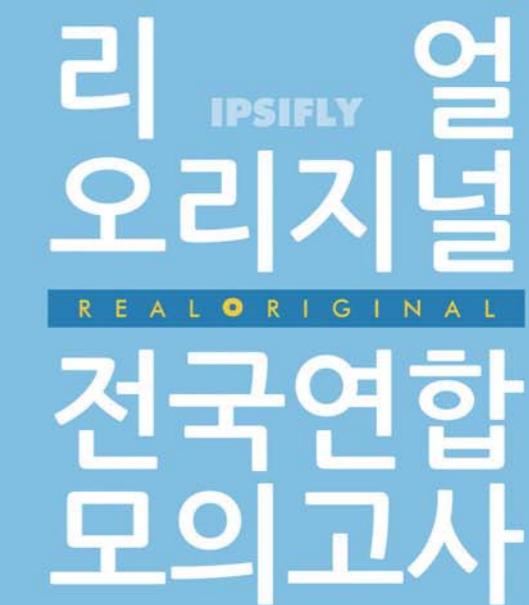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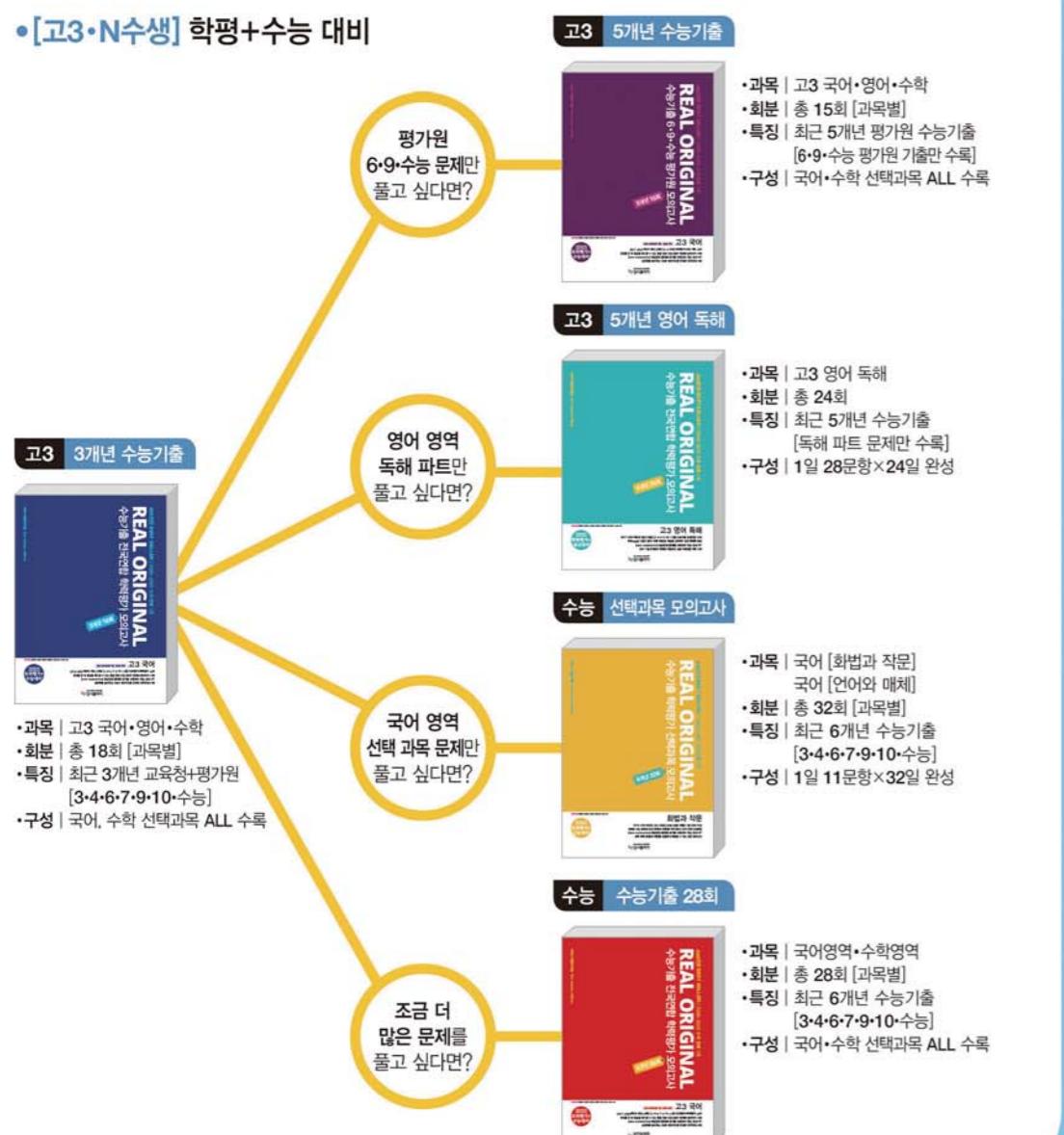
2019~2021학년도 최신 3개년 [3·6·9·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회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똑같은 시험지로 [1일 80분·12일 완성] 실전 연습
[new explanation] 해설편에 [문제와 보기를 수록]하여 학습 효과 UP
회차별 등급컷·빠른 정답·오답 BEST 5·OMR 카드 제공


2022 리얼 오리지널 BOOK LIST & MAP

• [고1·2] 내신+학력평가 대비



• [고3·N수생] 학평+수능 대비


고1 국어 3개년

차례

03월 전국연합

- 01회 2021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1쪽
 02회 2020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7쪽
 03회 2019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3쪽

06월 전국연합

- 04회 2021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49쪽
 05회 2020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5쪽
 06회 2019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81쪽

09월 전국연합

- 07회 2021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97쪽
 08회 2020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3쪽
 09회 2019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9쪽

11월 전국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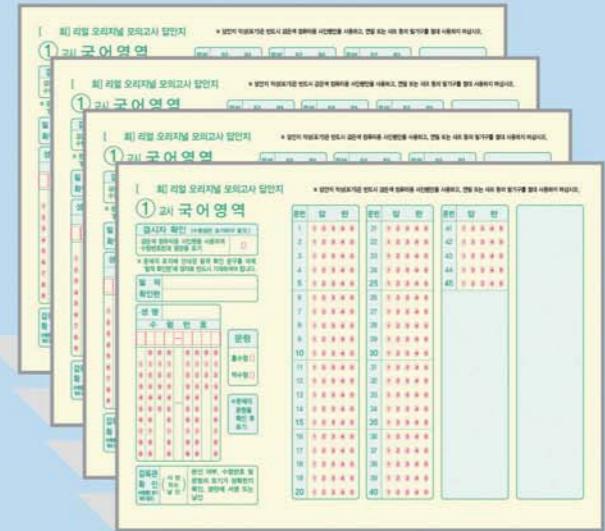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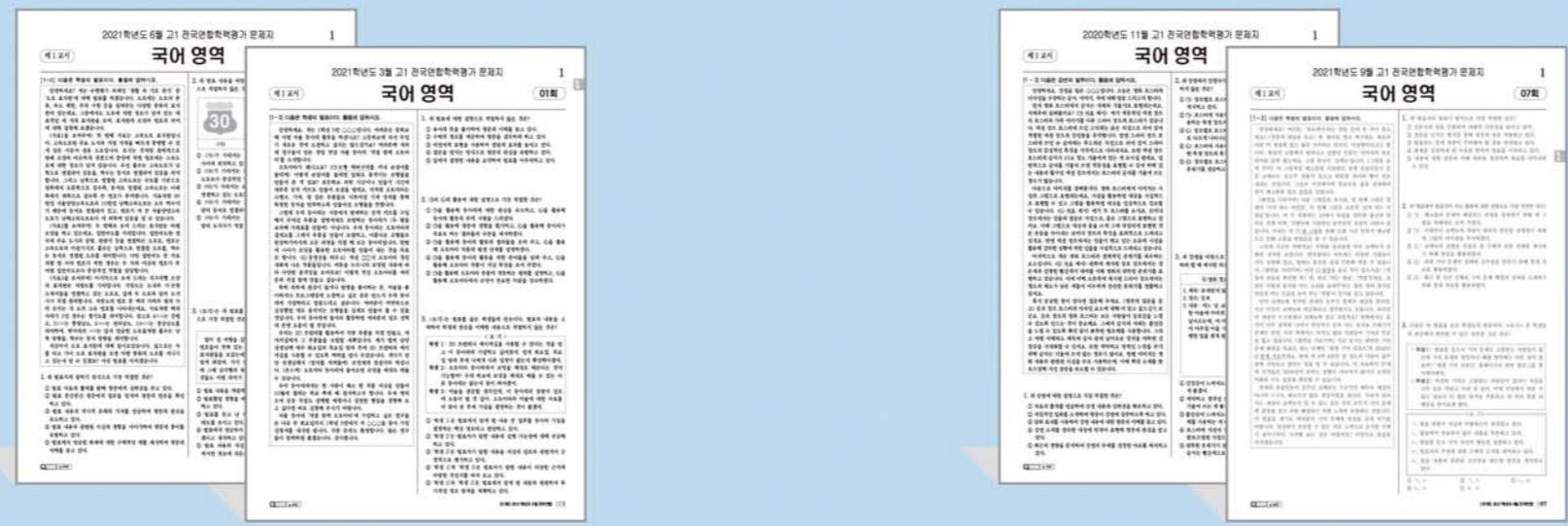
- 10회 2020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45쪽
 11회 2019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61쪽
 12회 2018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77쪽

- 정답과 해설 책속의 책

12년의 모의고사를 실전과 똑같이 풀어보면
내 실력과 점수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구성 특 전국연합 모의고사

REAL ORIGINAL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고1 국어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총 12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①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실려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②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타이머를 작동해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고1 학력평가+학교시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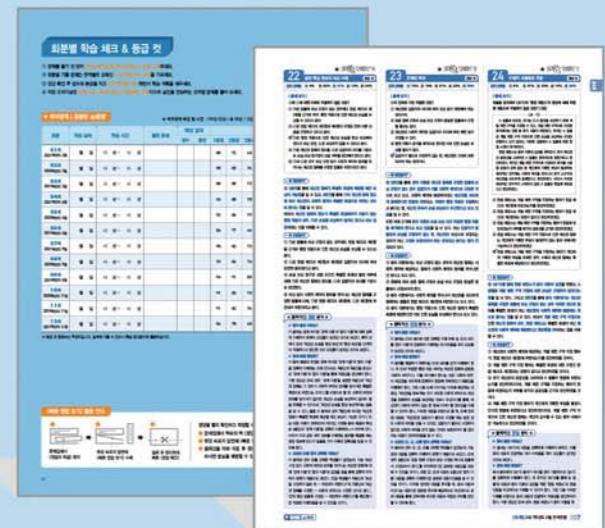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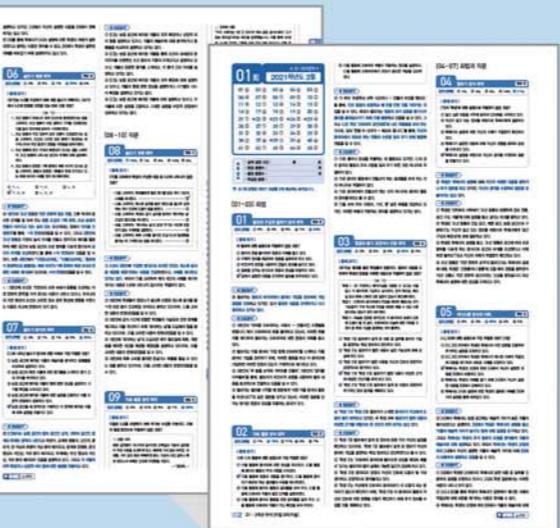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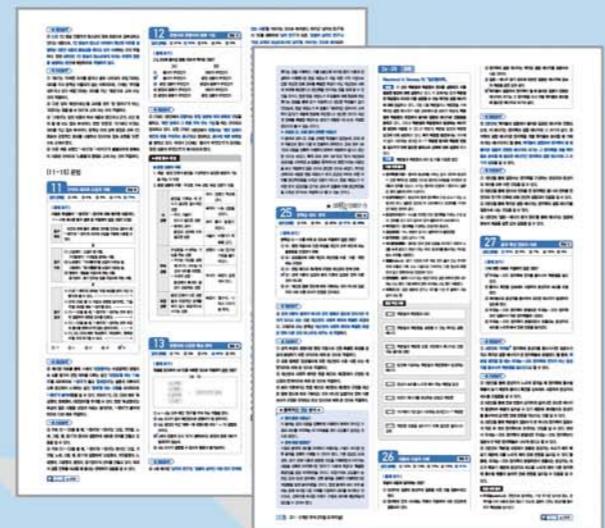
고1 3월·6월·9월·11월 시행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고1 학교 내신까지 대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① 연 4회 시행되는 학력평가를 대비해 12회분 문제를 풀어 보면 실려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 ② 학교 시험에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하거나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많아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OMR 체크카드

정답 마킹을 위한 OMR 체크카드는 실전력을 높여주며 부록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면 뒷부분에 수록했습니다.

- ① OMR 체크카드는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모의고사에서 마킹 연습은 또 하나의 실전 연습입니다.
- ② 답을 밀려 썼을 때 교체하는 연습도 중요하며, 추가로 OMR 체크 카드가 필요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

수능 시험장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전과 수능 시험지와
비슷한 크기의 문제지와 OMR 카드로
시간을 정해놓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핵심 어휘] 수록

지문의 핵심이 되는 어휘 풀이와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필수 개념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 ① 독서·문학 작품에 나오는 어휘 중 자주 접하지 않는 낯선 어휘나 꼭 알아야 할 어휘의 풀이를 수록했습니다.
- ② 해설 가운데 정답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은 별도의 교재를 통하지 않고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해설편 문제 ALL 수록 & 명쾌한 해설

국어 해설편에 문제를 모두 수록해 학습이 편리하고, 해설도 강화되어 혼자서도 학습이 충분합니다.

- ① 문제편과 해설편을 동시에 펼쳐서 공부하지 않아도 OK! 해설편에 문제와 보기를 수록하여 학습이 편리해졌습니다.
- ② 수험생 입장에서 친절한 눈높이 해설을 수록했으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답지의 선택지를 까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회분별 등급컷 & 오답 BEST 5

문제를 푼 후 자신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급컷과
오답 BEST 5 문제의 분석까지 수록했습니다.

- ① 회차별로 등급컷을 제공하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급컷은 학습 체크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② 오답 BEST 5에 해당하는 문제는 많이 틀린 이유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회분별 학습 체크 & 등급컷

- ①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②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 ③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④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이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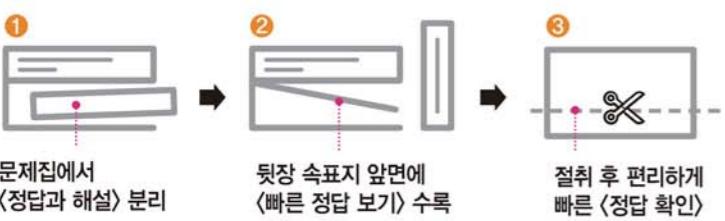
● 국어영역 | 회분당 45문항

* 국어영역 배점 및 시간 : 100점 만점 / 총 80분 / 2점, 3점(3점 문항에만 표시, 표기가 없으면 모두 2점)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21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0	72	63	55	46	38	30	22
02회 2020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3	74	64	52	41	32	24
03회 2019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0	72	62	52	43	33	24
04회 2021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2	85	75	64	52	39	28	20
05회 2020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2	86	79	70	59	47	35	23
06회 2019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6	77	66	55	43	32	24	18
07회 2021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0	82	73	62	49	35	26	19
08회 2020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3	86	76	66	52	38	27	20
09회 2019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6	91	83	72	58	41	26	20
10회 2020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3	73	61	47	33	23	18
11회 2019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1	82	74	61	47	33	24	18
12회 2018학년도 11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6	78	68	56	43	31	24	18

* 등급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빠른 정답 보기> 활용 안내



- 정답을 빨리 확인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빠른 정답 보기>**를 제공합니다.
- ① 문제집에서 책속의 책 <정답과 해설>을 분리하세요.
 - ② 뒷장 속지 앞면에 <빠른 정답 보기>가 있습니다.
 - ③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정답 확인할 때 사용하고, 책갈피처럼 사용 하시면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01회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고등학교에 와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저와 제 친구들이 만든 정말 멋진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를 소개합니다.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 손잡이를 돌리며)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어 본 적 있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만들기 시간에 대부분 공작 키트로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오토마타는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를 통해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조형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작 키트를 구입해서 주어진 부품을 설명서대로 조립하는 동아리가 (두 팔을 교차해 가위표를 만들며) 아닙니다. 우리 동아리는 오토마타의 설계도를 그려서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 보는 동아리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코딩을 활용한 오토마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영상은 띠우고) 작년 □□시 오토마타 경진 대회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코딩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멋진 오토마타를 여러분과 직접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발명을 좋아하는 분, 미술을 좋아하거나 프로그래밍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하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각종 부품을 직접 만들고, 메이커실에서 그 부품들을 조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벌써 담당 선생님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3D 프린터와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두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선생님께서 (엄지를 치켜들며) 코딩계의 전설이라 하십니다. (웃으며) 오토마타 동아리에 들어오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 사람이 최소 한 작품 이상을 만들어 10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 때 전시하고자 합니다. 두세 명씩 모여 공동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니 진정한 협업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에 가입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1학년 5반에서 저 ○○○을 찾아 가입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각종 문의도 환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청중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 ②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청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③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과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해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드러냈다.
- ② ㉠을 활용해 청중의 경험을唤起하고, ㉡을 활용해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 ③ ㉠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 주고, ㉡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였다.
- ④ ㉠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알려 주고, ㉡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이 지닌 특징을 보여 주었다.
- ⑤ ㉠을 활용해 오토마타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을 활용해 오토마타에서 코딩이 중요한 까닭을 강조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3D 프린터나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졌어. 먼저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에 나에게 다른 일정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학생 2: 오토마타 동아리에서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동아리는 없는지 찾아 봐야겠어.

학생 3: 미술을 전공할 생각인데, 이 동아리의 장점이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오토마타와 미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 본 후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말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를 따져 보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4~7] (가)는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교지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에 다니는 △△△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석물 등에 대해 학예사님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학예사: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종이 모셔서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학생: 네, 좋아요.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 되었는데요,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서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예사: 조선은 자연 훼손과 인위적인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전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예전에 건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도, 왕릉이 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예사: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했기에 그런 것이지요.

학생: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 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학예사: 여기 선릉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났던 홍살문까지가 진입 공간, 홍살문에서 여기 정자각까지가 제향 공간, 그리고 저 위가 왕릉의 핵심 공간인 능침 공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자각까지 오는 동안 능침 공간이 잘 보였나요?

학생: 아니요. 능침 공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데도 정자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학예사: 바로 그런 점이 조선 왕릉이 가진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관련됩니다. 능침 공간으로 올라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 정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능침 공간은 참배객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능침 공간에서는 왕릉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하여 조망 범위가 다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향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능침 공간을 향한 참배객의 시야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조선 왕릉의 독창성입니다.

학생: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예사: 맞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학생: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예사: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침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석물이 배치되었습니다.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고, 봉분 주변에 혼유석, 양 모양과 호랑이 모양의 석상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명등, 문신과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배치하여 질서 있는 공간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학생: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석물은 공간미를 위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학예사: 왕릉에 배치된 석물은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고유한 예술미를 바탕으로 왕릉 [B]의 장엄함을 강조하는 격조 높은 조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인상은 사각 기둥의 느낌이 나도록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수호신상과 같은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예술미를 드러냅니다.

학생: 덕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예사: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과 관련된 기준도 있으니 더 살펴봐도 좋겠네요.

학생: 네, 잘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왕릉은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제향 공간과 능침 공간의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위계를 조성하였다.

능침 공간은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뉘어 영역별로 다양한 석물이 배치되었다. 상계의 봉분에는 불교적 장식 요소를 새겨 넣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주변에는 영혼이 노리는 석상인 혼유석, 악귀로부터 능을 수호하는 양 석상과 호랑이 [C] 석상 등을 두었다. 중계에는 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히는 장명등, 문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하계에는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두었다. 이들은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이 잘 보존되고 살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조선의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례 과정을 담은 『국장도감의궤』, 왕릉의 조성 과정을 담은 『산릉도감의궤』 등의 기록물들은 왕릉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종묘에서 정례적으로 봉행되는 제례 의식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4.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예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가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례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하고 있다.
- ④ 학예사는 학생의 이해를 돋기 위해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다.
- ⑤ 학예사는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B]에서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8~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 전체
- 예상 독자 분석 결과: 설문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채식하는 날’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채식 급식은 맛이 없다.’, ②‘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③‘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④‘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등이 제시되었다.
- 내용 구성 방안: 채식이 건강에 주는 이점과 ⑤환경에 기여하는 점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한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에는 모든 학생에게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된다. 그런데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65%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식하는 날’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채소류 섭취가 늘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육류를 중심으로 음식을 골라 먹는 경향이 강하다. 잔반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양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이 육류 중심으로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걱정하셨다. 그러면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들도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식습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육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 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육류 소비를 적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전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막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①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에서 (나)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다.
 - 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 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야겠다.
 - ㄷ. 조선 왕릉에 공간 구성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에 나타나는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 ㄹ. 조선 왕릉과 관련한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례 의식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야겠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C]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예술미를 분석하고 왕릉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② 능침 공간의 특정 석물에 대한 평가들을 소개하고 평가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형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시기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⑤ 능침 공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배치된 석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8.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채식 식단의 사례를 제시한다. ①
- ②을 고려하여, 채소류 섭취를 늘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됨을 밝힌다. ②
- ③을 고려하여, 학생의 급식 실태를 밝히며 ‘채식하는 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③
- ④을 고려하여, ‘채식하는 날’의 운영 주기와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식재료를 설명한다. ④
- ⑤을 고려하여,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문 서적

육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고, 육류에 거의 없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 섬유 등은 부족하게 된다. 지방의 과잉 섭취나 특정 영양소의 부족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영양학』-

2. 인터뷰 내용

“우리 시에서는 1년 간 590여 개의 공공 급식소에서 ‘고기 없는 화요일’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75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 과체중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시 정책 홍보 담당자 -

3. 통계 자료



축산 분야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 -

- ① 2문단에 ㄱ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출처도 함께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② 2문단에 ㄴ을 활용하여 채식이 건강과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사례를 제시한다.
- ③ 3문단에 제시된 공공 기관의 사례를 ㄴ의 수치를 들어 구체화한다.
- ④ 3문단에 ㄷ의 <그림>을 삽입하여 통계 자료의 내용을 시작적으로 보여 준다.
- ⑤ 3문단에 ㄴ과 ㄷ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10.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①를 수정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고를 써서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은 육류, 육류, 채소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장을 수정해야 해요.

- ①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 음식보다 채소류 음식이 학생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소류 음식을 더 많이 먹이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②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을 접할 기회를 늘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③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④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어 학교 급식의 잔반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⑤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기후 위기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한다.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ㅏ, ㅓ, ㅕ, ㅗ, ㅚ, ㅜ, ㅟ, ㅡ, ㅣ’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라 하는데, 이중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 예를 들어 이중 모음인 ㅑ의 발음은, ㅏ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뒤에서 ㅏ’가 결합한 소리이다. ㅏ’와 마찬가지로 ㅕ, ㅓ, ㅕ, ㅗ, ㅛ, ㅜ, ㅟ, ㅡ’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j]’와 단모음 ㅓ, ㅗ, ㅕ, ㅜ, ㅟ’가 결합한 소리이다. ㅗ’나 ㅜ’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w]’도 있는데 ㅕ, ㅓ, ㅕ, ㅗ, ㅛ’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w]’와 단모음 ㅏ, ㅓ, ㅕ, ㅗ, ㅛ’가 결합한 소리이다.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서 결합한 소리인 ㅕ’를 제외하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ㅚ’와 ‘ㅟ’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ㅚ’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ㅟ’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ㅚ’와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ㅠ’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 ② ㅐ’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 ③ ㅕ’의 발음은 반모음 [j]’뒤에서 단모음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
- ④ ㅕ’의 발음은 단모음 ㅓ’뒤에서 반모음 [j]’가 결합한 소리이다.
- ⑤ 반모음 [w]’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12.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학생 1: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ㅚ’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더라고. 그러면 ‘참외’는 [차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학생 2: 그래, 맞아. ‘표준어 규정’에서는 ‘ㅟ’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ㅟ’의 이중 모음 발음은 ㅑ, ㅓ, ㅕ, ㅗ, ㅛ, ㅜ, ㅟ, ㅡ, ㅣ’의 발음 중에 ②.

- | | |
|------|-------------|
| ① | ② |
| [차외] | 포함되어 있지 않아 |
| [차외] | ‘ㅚ’ 소리에 해당해 |
| [차외] | ‘ㅟ’ 소리에 해당해 |
| [차외] | 포함되어 있지 않아 |
| [차외] | ‘ㅚ’ 소리에 해당해 |

13.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 ②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 ③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 준 일을 잊지 않았다.
- ④ 날이 추워지면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
- 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 ① ㉠: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 ‘그가 우리를 도와 준’이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군.
- ⑤ ㉤: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홀문장이군.

14. <보기 1>은 국어사전의 일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드리다 [드리다] ⑥ [드리어(드려), 드리니]

[…에 /에게 …을]

[1] ‘주다’의 높임말.

[2]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

들이다 [드리다] ⑥ [들이어(들여), 들이니]

[1] 【…을 …에】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

[2] 【…에 /에게 …을】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보기 2>

새해	첫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선생
님	댁을	방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사랑방	
에 ㉠	들이면서	매우	기뻐하셨다.	우리는	
함께	세배를	하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
을	담은	편지를 ㉡ 드렸다.	선생님을	으못	
하게	했다.	정성을 ㉢ 드렸다.	쓴	편지였다.	

① ㉠은 ‘들이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② ㉠을 포함한 문장에 ‘우리를’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기 때문이군.

③ ㉡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④ ㉢은 ‘들이다’[2]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들여’라고 고쳐 써야 하는군.

⑤ ㉠과 ㉡은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풀이되는군.

15.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⑦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선생님: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ㅁ’은 입 모양을, ‘ㅅ’은 이[齒]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ㅎ, ㆁ’을 만들었고,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자 ‘ㆁ, ㄹ, ㅿ’을 만들었지요.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ㆁ, ㆁ, ㆁ’을 만들고,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 ‘ㆁ, ㆁ, ㆁ’과 재출자 ‘ㆁ, ㆁ, ㆁ’을 만들었어요.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훈민정음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⑦ 아래의 카드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볼까요?

[조건]

- 초성: 이[齒]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
- 중성: 초출자 ‘ㆁ’에 기본자 ‘ㆁ’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
- 종성: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民本)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⑧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⑨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아들여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 논했다. 이이는 특히 애민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⑩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畏民)]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⑪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준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⑫ 기반한 주장이었다.

조선 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A]는 감찰 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 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 제도 등을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② 조선 시대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조선 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조선 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조선 시대 상업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7. [외민(畏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
- ②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③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이다.
- ④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백성의 이상적 모습이다.
- ⑤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옛날에 바아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에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 정도전, 『삼봉집』 -

ㄴ. 청천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공물들도 삼분의 일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이, 『율곡전서』 -

ㄷ.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 오르는데 수백 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높을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

- ① ㄱ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 ② ㄴ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③ ㄷ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 ④ ㄱ과 ㄷ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 준다.
- ⑤ ㄴ과 ㄷ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이다.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후 활동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자료]

조선 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결론]

[자료]와 [A]는 조선 시대의 (⑦)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① 백성이 교육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는지
- ②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 ③ 교육 방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되었는지
- ④ 신분 질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 ⑤ 백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는지

20.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따라야
- ② ⑧: 가다듬는
- ③ ⑨: 끊임없이
- ④ ⑩: 걸맞은
- ⑤ ⑪: 바탕을 둔

[21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①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명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①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 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 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 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②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③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④ 경계 이론과 ⑤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⑥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⑦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

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러한 경우 ⑧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산권: 재산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 ② 공용 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 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 ③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 ④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 기관이 사설 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

22. ⑦과 ⑧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⑧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 ③ ⑦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⑧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⑦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⑧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⑤ ⑦과 ⑧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23. ⑨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하는 권리이다.
- ②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될 수 있다.
- ④ 행정 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 할 필요가 없다.
- 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0</td><td>0</td><td>0</td><td>0</td><td>0</td></tr> <tr><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2</td><td>2</td><td>2</td><td>2</td><td>2</td></tr> <tr><td>3</td><td>3</td><td>3</td><td>3</td><td>3</td></tr> <tr><td>4</td><td>4</td><td>4</td><td>4</td><td>4</td></tr> <tr><td>5</td><td>5</td><td>5</td><td>5</td><td>5</td></tr> <tr><td>6</td><td>6</td><td>6</td><td>6</td><td>6</td></tr> <tr><td>7</td><td>7</td><td>7</td><td>7</td><td>7</td></tr> <tr><td>8</td><td>8</td><td>8</td><td>8</td><td>8</td></tr> <tr><td>9</td><td>9</td><td>9</td><td>9</td><td>9</td></tr> </table>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문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홀수형 0</td></tr> <tr><td>짝수형 0</td></tr> </table>					홀수형 0	짝수형 0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td><td>(서명 또는 날인)</td><td>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문번	답 란
41	1 2 3 4 5
42	1 2 3 4 5
43	1 2 3 4 5
44	1 2 3 4 5
45	1 2 3 4 5

리얼 오리지널 | 고1 (3개년)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① 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0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0</td><td>0</td><td>0</td><td>0</td><td>0</td></tr> <tr><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2</td><td>2</td><td>2</td><td>2</td><td>2</td></tr> <tr><td>3</td><td>3</td><td>3</td><td>3</td><td>3</td></tr> <tr><td>4</td><td>4</td><td>4</td><td>4</td><td>4</td></tr> <tr><td>5</td><td>5</td><td>5</td><td>5</td><td>5</td></tr> <tr><td>6</td><td>6</td><td>6</td><td>6</td><td>6</td></tr> <tr><td>7</td><td>7</td><td>7</td><td>7</td><td>7</td></tr> <tr><td>8</td><td>8</td><td>8</td><td>8</td><td>8</td></tr> <tr><td>9</td><td>9</td><td>9</td><td>9</td><td>9</td></tr> </table>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0	0	0	0	0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9	9	9																																																		
문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홀수형 0</td></tr> <tr><td>짝수형 0</td></tr> </table>					홀수형 0	짝수형 0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td><td>(서명 또는 날인)</td><td>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감독관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문번	답 란
41	1 2 3 4 5
42	1 2 3 4 5
43	1 2 3 4 5
44	1 2 3 4 5
45	1 2 3 4 5

리얼 오리지널 | 고1 (3개년)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 번호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문번

답 란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리얼 오리지널 | 고1 (3개년)

진학

진학

진학

[회]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 답안지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교시 국어영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적 확인란

성명

수험 번호

문형

홀수형 0

짝수형 0

※ 문제의 문형을 확인 후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것)
(서명 또는 날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 및 문형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문번

답 란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리얼 오리지널 | 고1 (3개년)

진학

진학

진학

학력평가 · 내신 시험 대비



정답과 해설

Contents

차례

03월 전국연합

- 01회 2021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02쪽
- 02회 2020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13쪽
- 03회 2019 학년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25쪽

06월 전국연합

- 04회 2021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36쪽
- 05회 2020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46쪽
- 06회 2019 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57쪽

09월 전국연합

- 07회 2021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67쪽
- 08회 2020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78쪽
- 09회 2019 학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089쪽

11월 전국연합

- 10회 2020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00쪽
- 11회 2019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12쪽
- 12회 2018 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3쪽



※ 수록된 답지 선택률(정답률)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도와 매력적인 오답을 파악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점	결	과	• 실제 걸린 시간 :	분	초
• 맞은 문항수 :	개					
• 틀린 문항수 :	개					
• 헛갈린 문항 :	개					

★ 표기된 문항은 BEST 오답률 5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01~03] 화법

01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5
답지 선택률	① 4% ② 4% ③ 5% ④ 1% ⑤ 86%	

1 문제 보기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②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청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③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5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⑤ 발표자는 발표의 마지막에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	---

• 왜 오답일까?	① 2문단의 '이처럼 오토마타는 크랭크 ~ 만들어진 조형물을 뜻합니다.'에서 오토마타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뜻을 이를 제시하여 발표자는 오토마타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②	발표자는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를 소개하고 자율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두 팔을 교차해 기우표를 만들며', 5문단의 '엄지를 치켜들며'를 통해, 발표자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어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02	자료 활용 방식 파악	정답 2
답지 선택률	① 1% ② 79% ③ 11% ④ 2% ⑤ 7%	

1 문제 보기	①과 ⑤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⑦을 활용해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⑤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드러냈다.
②	⑦을 활용해 청중의 경험을唤起하고, ⑤을 활용해 동아리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③	⑦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 주고, ⑤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였다.
④	⑦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알려 주고, ⑤을 활용해 오토마타 작품이 지닌 특징을 보여 주었다.

⑤ ⑦을 활용해 오토마타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⑤을 활용해 오토마타에서 코딩이 중요한 깊이를 강조하였다.

• 왜 정답일까?

⑦ 뒤의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 만들어 보셨던 텐데요.'를 통해 ⑦은 청중이 초등학교 때 만들 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청중의 과거 경험을唤起시키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⑦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⑦은 작년 '오토마타 경진대회'에 나온 작품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의 '한발 더 나아가 ~ 목표로 합니다.'를 통해, 자신의 동아리에서 목표로 하는 작품의 수준을 알려 주기 위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⑦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⑦의 경우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⑦은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⑦은 동아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아리 활동의 준비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⑦을 보여 주며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않다.

[04~07] 화법과 작문

04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5
답지 선택률	① 1% ② 4% ③ 4% ④ 14% ⑤ 77%	

| 문제 보기 |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예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 왜 정답일까?

① ⑦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⑦의 경우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⑦은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⑦은 동아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아리 활동의 준비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⑦을 보여 주며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않다.

• 왜 오답일까?

① ⑦은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⑦의 경우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⑦은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⑦은 동아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아리 활동의 준비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⑦을 보여 주며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않다.

설명하고 있지만,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지는 않고 있다.

⑤ [B]를 통해 학예사가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B]에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06 글쓰기 계획 파악

06	글쓰기 계획 파악	정답 4
답지 선택률	① 2% ② 9% ③ 1% ④ 85% ⑤ 3%	

| 문제 보기 |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에서 (나)에 반영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다.
- 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된 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어야겠다.
- ㄷ. 조선 왕릉에 공간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에 나타나는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 ㄹ. 조선 왕릉과 관련된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왕릉과 관련된 기록들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례 의식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야겠다.

✓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다.

• 왜 정답일까?

④ 1문단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를 통해 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를 통해 ㄹ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를 통해 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3문단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를 통해 ㄹ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4문단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를 통해 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⑨은 '채식하는 날'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의 기후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공공 기관의 사례이며, ⑩은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 자료이다.

그리고 3문단은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ㄴ과 ㄷ은 3문단과 관련하여 초고를 보완할 때 '채식하는 날'의 도입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⑧ 4문단은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 왜 정답일까?

① (나)의 2문단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않다. 따라서 ⑦을 고려하여 채식 식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② ⑨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전문 서적 자료이므로, 2문단에 추가하여

④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을 접할 기회를 늘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⑤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⑥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어 학교 급식의 전반 채소류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⑦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학생들의 육류 음식 위주로 먹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의 섭취 기회를 늘려 보다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왜 정답일까?

② <보기>에서 선생님은 '채식하는 날'과 '학교 급식'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제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초고를 수정한다면, '채식하는 날'이 학생들의 육류 음식 위주로 먹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류 음식의 섭취 기회를 늘려 보다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왜 오답일까?

① 육류 음식보다 채소류 음식이 학생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나)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③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나)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④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과 관련이 있으나, 학교 급식의 전반 중 채소류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은 (나)의 주장과 일치하나,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11~15] 문법

11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이해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5% ② 3% ③ 3% ④ 86% ⑤ 3%

| 문제 보기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ㅠ'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② 'ㅓ'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③ 'ㅕ'의 발음은 반모음 '[j]' 뒤에서 단모음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
 ④ 'ㅕ'의 발음은 단모음 'ㅓ' 뒤에서 반모음 '[j]'가 결합한 소리이다.
 ⑤ 반모음 '[w]'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 중 모음을 이룬다.

• 왜 정답일까?

④ 제시된 글 2문단의 'ㅓ'나 'ㅜ'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w]'도 있는데 '나, 내, 너, 네'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w]'와 단모음 'ㅓ, ㅓ, ㅓ,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를 통해, '나'는 반모음 '[w]'가 단모음 'ㅓ' 앞에서 결합한 이중 모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2문단에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이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ㅠ'는 이중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ㅓ'는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ㅓ'와 마찬가지로 'ㅓ, ㅓ, ㅓ, ㅓ,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를 통해, 'ㅓ'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j]'와 단모음 'ㅓ, ㅓ, ㅓ, ㅓ,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를 통해, 'ㅓ'의 발음은 'ㅓ'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 뒤에서 'ㅓ'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이중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를 통해, 반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이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문법 필수 개념

* 반모음

1. 개념: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혼자서는 음 절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되는 모음으로,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되는 모음임.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달표(+)를 이용하여 ㅓ, ㅗ / ㅜ로 표시함.

2. 종류

ㅓ [ㅓ]	허가 'ㅓ'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모음
ㅗ / ㅜ [ㅜ]	허가 'ㅗ / 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모음

12 표준어 규정에 따른 발음의 이해

정답 ①

답지 선택률 ① 51% ② 16% ③ 6% ④ 20% ⑤ 7%

| 문제 보기 |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①, 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학생 1: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다고. 그러면 '침'의 '자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학생 2: 그래, 맞아. '표준어 규정'에서는 '나'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나'의 이중 모음 발음은 'ㅏ,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의 발음 중에 ⑤.

- ① [차웨] 포함되어 있지 않아
 ② [차웨] '나' 소리에 해당해
 ③ [차웨] 'ㅓ' 소리에 해당해
 ④ [차웨] 포함되어 있지 않아
 ⑤ [차웨] 'ㅓ' 소리에 해당해

• 왜 정답일까?

① 3문단을 통해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나'와 'ㅓ'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의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이 소리는 'ㅓ'의 발음을 해당하므로, ⑤에 들어갈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차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는데, 이 소리는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의 발음 중에 없으므로 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 적절하다.

13 문장의 짜임 파악

정답 ④

답지 선택률 ① 4% ② 14% ③ 12% ④ 61% ⑤ 9%

| 문제 보기 |

⑤ ~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②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③ 나는 그가 우물을 도와 준 일을 잊지 않았다.
 ④ 날이 추워지면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

- ⑤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⑥ 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⑦ ②: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⑧ ③: '그가 우물을 도와 준'이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왜 정답일까?

④ ⑤는 문장에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게 하다.'의 의미로, ⑦이 포함된 문장은 '들이다'[1]의 용례라고 할 수 있다.
 ⑥ ②: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⑧ ③: '그가 우물을 도와 준'이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⑨ ④: '날이 추워지면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군.

⑩ ⑤: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홀문장이군.

⑪ ⑥: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군.

⑫ ⑦: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홀문장이군.

• 왜 정답일까?

④ ⑨: '들이다'[2]의 의미인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들여'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⑤ <보기 1>에 제시된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드리다'와 '들이다'는 다르어이다. 따라서 ⑦과 ⑧의 의미는 사전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뜻풀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적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 '우리를'을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하였다.

④ ⑩: '들이다'[2]의 의미인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들여'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⑤ <보기 1>에 제시된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드리다'와 '들이다'는 다르어이다. 따라서 ⑦과 ⑧의 의미는 사전의 표제어 아래 제시된 여러 뜻풀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천(天)[양성]	-	ㄴ(+) + , ㅏ(+) + ,	ㅍ(+) + , ㅑ(+) + ,
지(地)[음성]	-	ㄴ(+) + , ㅏ(+) + ,	ㅠ(+) + , ㅑ(+) + ,
인(人)[중성]			

노력해야 할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정약용은 정도전, 이이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보살피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들과 달리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협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조선 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일까?

① 2문단에서 왕권이 작동하기 위해 조선 시대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부유한 대민이 납세의 부담을 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고 있다.

④ 2~4문단에 제시된 정도전, 이이, 정약용의 군주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군주들의 통치관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군주들의 통치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4문단에서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선 시대 상업의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화하는 알고 있다.

15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이해

정답 ②

답지 선택률 ① 2% ② 84% ③ 8% ④ 3% ⑤ 3%

| 문제 보기 |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④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선생님: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발을 기판의 모양을 본드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ㄱ'은 허리부터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허리윗몸에 닿는 모양을, 'ㄷ'은 입 모양을, 'ㅅ'은 이[齒]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드는 모양이에요. 기본자는 소리의 세기와 따라 키를 더하는 '기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획자 'ㄱ, ㄷ, ㅌ, ㅂ, ㅍ, ㅈ, ㅊ, ㅎ, ㅋ'을 만들었고, 상형이나 기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ㅂ, ㅍ, ㅈ'을 만들었어요. 중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드놀 이를 하며 훈민정음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④ 아래의 카드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볼까요?

- [조건]
 • 초성: 이[齒] 모양을 본드 기본자에 기획하여 만든 글자
 • 중성: 초출자 'ㄴ'에 기본자 'ㄱ'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
 • 종성: 상형이나 기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 왜 정답일까?

② <보기>를 통해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이[齒]의 모양을 본드 기본자는 잇소리 '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기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기획자 'ㅈ, ㅊ'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를 통해 중성 중에서 초출자 'ㄴ'에 기본자 'ㄱ, ㄷ'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ㄴ'이고, '상형'이나 '기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줄'이라 할 수 있다.

• 문법 필수 개념

1. 초성의 제자 원리 : 자음 17자

상형(象形)의 원리
 +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드
 소리의 세기를 반영하여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1획 기획자	2획 기획자	이체자
어금니소리 [아음]	ㄱ	ㅋ		○
헛소리 [설음]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순음]	ㅁ	ㅂ	ㅍ	
잇소리 [치음]	ㅅ	ㅈ	ㅊ	ㅎ
목구멍소리 [후음]	ㅇ	ㅎ	ㅎ	

2. 중성의 제자 원리 : 모음 11자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드 기본자 'ㅓ', 'ㅡ', 'ㅣ'를 만든 후, 기본자를 조합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



[누적 판매 1위] 리얼 오리지널 시리즈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92만권을 판매하여 험리적인 기준과 신세한 해설을 강증법은 수능기출 베스트셀러입니다.

2022 리얼 오리지널 BOOK LIST

예비 고1

- 전과목 |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18회
- 전과목 | 반배치고사 +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30회

고1 3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 수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 전과목 | 6월 학력평가+기말고사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8회
- 전과목 | 9월 학력평가+중간고사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8회

고1 4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6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6회
- 통합 사회·과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30회

고2 3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 수학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고2 4개년

- 국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6회
- 영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4개년 16회

영어 독해

- 고1 영어 독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5개년 20회
- 고2 영어 독해 |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5개년 20회
- 고3 영어 독해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5개년 24회

고3 3개년

- 국어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18회 [공통+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 영어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18회
- 수학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년 18회 [공통+화률과 통계·미적분·기하]

고3 5개년

- 국어 | 수능기출 6·9·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5개년 15회 [공통+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 영어 | 수능기출 6·9·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5개년 15회
- 수학 | 수능기출 6·9·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5개년 15회 [공통+화률과 통계·미적분·기하]

고3 사회·과학

- 사회·문화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42회
- 생활과 윤리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42회
- 생명과학 I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42회
- 지구과학 I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42회

국어 [선택과목]

- 국어 | 수능기출 학력평가 선택과목 모의고사 6개년 32회 [화법과 작문]
- 국어 | 수능기출 학력평가 선택과목 모의고사 6개년 32회 [언어와 매체]

수능기출 6개년 28회 [limited edition]

- 국어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28회 [공통+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 수학 | 수능기출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6개년 28회 [공통+화률과 통계·미적분·기하]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 영어

- 영어(상) | 2023 수능·학교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 영어(하) | 2023 수능·학교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 영어독해연습(상) | 2023 수능·학교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 영어독해연습(하) | 2023 수능·학교시험 대비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수능에서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서 10권도 좋지만 리얼 오리지널 기출 문제집을 한 번 더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리얼 오리지널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3개년 12회 [고1 국어]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 발행일 2021년 11월 11일(제 1쇄) 등록번호 제 2017-22호

홈페이지 www.ipstfl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용규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해민 임명선 뮤류관리 김소희 이해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과 편집 형태에 대한 저작권은 입시플라이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복사·복제를 일절 금합니다.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9 788968 982378

ISBN 978-89-6898-237-8

정가 12,000 원